

천 개의 몸을 버리고 부처가 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6)

건타사리 국왕의 태자

건타사리 국왕의 태자는 영화(榮華)에 뜻이 없어 호사(豪奢)를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다. 그때에 깊은 골짜기에는 한 마리 굶주린 범이 있었다. 새끼 일곱 마리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눈까지 내려서 어미 범은 새끼를 품고 사흘이 지나도록 먹이를 구할 수 없었다. 새끼가 얼어 죽을까 걱정스러워 배고픔을 참고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눈이 그치지 않았다. 어미와 새끼는 모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어미는 너무도 굶주린 나머지 새끼를 잡아먹으려 했다. 이때 여러 신선들이 말했다.

“누가 몸을 버려서 저들을 구제하겠는가?”

신선들의 말을 들은 태자가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남떠러지 골짜기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미 범이 새끼를 품은 채 눈에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자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산꼭대기에서 서서 선정에 들었다. 곧 청정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고서 과거의 아득한 겁 동안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래 또한 그렇게 살펴보고서 곧 돌아와 스승과 5백의 동학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몸을 버리겠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도를 배운지 오래지 않았고 지견도 아직 넓지 못한데, 왜 갑자기 가까운 몸을 버리려고 하느냐?”

태자는 대답했다.

“저는 옛날에 천 개의 몸을 버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전생에 999개의 몸을 버렸으니, 오늘 버리게 되면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버리는 것이니, 스승께서도 기뻐하십시오.”

스승이 말했다.

“그대의 뜻과 원이 높고도 미묘하여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니, 다시는 버리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태자는 스승에게 하지 인사를 올렸다. 스승과 5백의 신선들은 눈이 붓도록 슬피 울면서 태자를 따라 산 벼랑 끝까지 이르렀다. 그때 마침 그 날 부란 장자가 낚시 5백을 데리고 공양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태자가 몸을 버리려 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역시 태자를 따라 산벼랑 끝에 이르렀다. 태자는 대중들 앞에서 크게 서원을 세웠다.

“나는 지금 몸을 버려 중생의 생명을 구제하겠습니다. 보리를 이루어 급강의 몸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무위법신을 얻어서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이를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이 몸에는 무상과 괴로움과 온갖 독이 쌓여 있고, 이 몸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몸을 되풀이하며 감미로운 음식과 5육락으로 공양한다면 몸이 죽은 뒤에 은혜를 받을 홀륭함이라곤 없으니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말했다.

“지금 나의 살과 피로써 저 주린 범을 구제하고 나머지 사리골은 나의 부모가 훗날 탐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몸에 있는 모든 병고와 외로움이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해 탕약과 침과 뜸으로 나올 수 없게 될 때, 나의 탐에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면 병의 경중에 따라 백 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 하늘들은 향과 꽃을 비처럼 내려 주십시오.”

태자가 말을 마치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비처럼 내렸으며 땅이 모두 진동했다. 태자는 곧 사슴 갑옷을 벗어서 머리를 싸매고 스스로 몸을 범 앞

로 달려갔다. 왕이 듣고는 기절해 버렸으므로 신하들은 왕에게 간하였다.

“태자는 산에 계시오니, 왕께서는 잠시 진정하십시오.” 왕과 부인과 비후, 채녀, 신하, 백성들이 달려서 산으로 올라갔고, 장자 부란은 마중 나와서 왕에게 말했다.

“태자는 어제 몸을 바위 아래로 던져 자신의 살을 범에게 먹였습니다. 지금은 뼈가 흩어져 어지러이 땅에 있을 뿐이니, 함께 시신이 있는 데로 가십시오.”

왕과 왕비를 비롯한 대중이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어 산꼭대기가 진동했다. 왕과 왕비는 아들의 시신 위에 엎드려 간장이 끊어지도록 슬피 울다가



삼화·강영호

에 던졌다. 그러자 어미와 새끼가 태자의 살을 먹고, 모두 다 살아났다. 이때 남떠러지 골짜기에 있던 대중은 태자가 범에게 먹혀 뼈와 살이 흩어져 어지러이 널린 것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크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산을 진동시켰다. 어떤 이는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땅에 누워 땀구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는 선정에 드는 이도 있었고,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하는 이도 있었다. 여러 하늘과 천제석과 사천왕 등과 일월의 하늘들과 수천만 대중들은 모두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어 음악을 울리고 향을 지피며 꽃을 흩뿌리면서 태자를 공양하고 부르짖었다.

“홀륭하십시오. 마하살타시여, 이로부터 오래지 않아서 도량에 앉으시게 되오리다.”

사자(使者)가 두려워하면서 곧 음식을 여러 신선들에게 주고 돌아와서 태자의 어머니인 왕비에게 자세히 위의 일을 전했다. 왕비가 말했다.

“재화(災禍)로우나, 나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크게 부르짖으며 왕에게

기절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태자비는 나아가 태자의 머리를 볼려고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말했다.

“차라리 내 몸이 부서져서 남편 대신 범의 먹이가 될 것을.”

그때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태자는 보시하며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했고, 무상의 살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범새가 나가거나 문드러지지 않았으니, 공양을 베푸셔야 합니다.”

곧 유골을 거두어 산꼭대기 어귀로 나와서 평평한 땅에다 전단향의 나무를 잘고 향과 소유를 뿌리고 화장하였으며, 사리를 거두어 가져다 칠보탑을 세웠다. 그때 태자는 훗날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부왕은 부처님의 아버지이며,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였으며 화장을 한 이는 아난이었다. ((보살투신반야호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6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처님의 형상

우리는 불자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순례하면서 많은 부처님(불상)을 친견하게 되고, 그 다양한 형상을 보면서 각 나라의 특징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모습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장 예경하며 공양할도 올린다.

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거나 동으로 만든 불상, 돌로 만든 불상, 또는 목재로 만든 불상 등 여러 종류의 불상은 실상(實相)의 부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통해 살아가시는 부처님을 친견하는 마음으로 모신다. 하지만 그 부처님을 부처님이 아닌데 왜 절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그림 일지라도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란 생각으로 불상을 보게 되고 부처님이란 글자를 보아도 우리는 부처님이라는 생각에서 다른 시비(是非)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부처님을 크게 모시면서 세계 최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그 곳이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상이 커야만 반드시 영험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처녀시절 난생 처음으로 이웃 노보살님들을 따라 통도사 백운암에서 삼일기도를 한 일이 있었다. 절은 영취산 깊고 높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힘들게 올라갔으며, 그곳의 암자는 아주 작았고 부처님도 작은 유리관 속에 모셨다.

불상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들 군대보내는 부모마음 다 같아

노보살님들은 새벽 세 시가 되자 너무도 추운 정월이었는데도 개울가에 공경 얽은 얼음을 방망이로 깨고 찬물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따라서 했었다. 머리는 금방 얼어붙어 벗어 내려가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 했는데, 노보살님들을 따라 절을 하고 있을 때 머리에서 덜거럭 덜거럭 소리가 나더니 방안의 따뜻한 온기와 절 할 때의 열기로 얼음이 녹아내렸다. 나는 이 작은 불상 앞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궁금했고,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노보살님들을 따라 절을 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매일 조석으로 집 앞 대각사에 가서 백팔 배를 꼭 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되었고 실천에 옮겼다. 그렇게 백일을 기도하는 동안 청년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활동 하게 되었다.

그 후 남해 보리암에 갔을 때도 이곳 역시 작은 법당에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 삼대관음성지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간절한 기도로 밤을 새우는 곳이다. 나도 또한 그 속에서 심심으로 부처님의 가피도 알게 되었고 불자로서의 삶이 더욱 성숙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터 매일 절에 갈 수가 없어 작은 불상을 방 한 칸에 모시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매

일 백팔 배와 사경을 했다. 아이들에게도 매를 드는 대신 백팔배를 시켜 부처님 품속에서 자라게 했다. 사람들은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소풍갔을 때나 여행에서 부모님께 귀한 선물이라며 불상을 사올라치면 그마저도 집에 불상을 두면 큰일 난다며 아이를 나무라며 절에 다시 가져와 몰래두고 가는 어리석은 불자들이 있어 안타깝다.

삼귀의례와 오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행하며 사홍서원을 이루려는 의미를 늘 기억하고 집집마다 불상이 아니면 ‘佛’ 자 한자라도 걸어두고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고, 오늘하루도 내게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기도와 참선으로 바른 불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불교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미래의 한국불교를 어떻게 말 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소중한 인격과 인품으로 자랑스러운 불자를 키움이 가장 큰 공덕이 아닐까 싶다.

부모의 마음

TV에서 텔런트 이동준의 아들 이일민의 이야기가 소개 되고 있었다. 가족의 화기에애한 행복한 생활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곧 군대에 가야하는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엄마의 마음은 여느 엄마와 다를 바 없었다. 아들 말만해도 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아빠인 이동준은 남자여서일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첫 번째 순간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고, 두 번째는 아들이 군대에 가는 영장을 받았을 때라고 했다. 그것도 해병대를 간다고 하니 아들이 너무도 믿음직하다고 했다. TV를 보면서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도 다를까, 생각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기 위해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갈 때였다. 함께 따라나선 아버지는 바리깡을 받아 손수 아들의 머리를 밀어 주었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씩씩하던 아버지도 별 수 없었다. 아들은 시원히 깎긴 머리를 아무만지며 서운한 마음과 어색한 듯 미소를 지으며 “아이 추워”라고 했다. 머리를 깎은 아들의 모습을 본 엄마는 “더 애기 같다”며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의 눈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들을 보는 마음은 마냥 어린 아이 같아 보이는 모양이다. 입대날이 되었다. 전국의 많은 부모님들의 환송을 받고 입대 하는 젊은 청년들 속에 아들 일민이도 있었다. 그리고 이 많은 부모님들 속에 일민이의 부모도 내내 아들을 지켜보며 연신 힘내라고 파이팅을 외쳐 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오늘은 아빠도 어쩔 수가 없나보다. 그동안 든든하고 대견하게만 생각했던 아들을 떠나 보내는 이 순간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눈물을 보려고 말했다. 부모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라도 부모라면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 정진 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남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